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후시기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반당반혁명종파도당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이끄신 현명한 령도

박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반당반혁명간첩도당을 적발숙청하였으며 8월전원회의와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종파의 마지막 잔당들을 청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당대렬의 조직적단결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확고히 실현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83권 460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와 조성된 정세의 요구, 당내부의 실태를 예리하게 포착하시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단호하게 벌리심으로써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당을 조직적으로 공고화하는데서 역사적전환점을 마련하시였다.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은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분파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반당반혁명종파도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당중앙위원회 주체45(1956)년 8월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안에 숨어있는 련합된 종파집단을 단호하게 숙청해버리도록 하신것이다.

1950년대 중엽에 이르러 우리 혁명의 안팎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여기에 겁을 먹은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밖으로는 대미타협로선을 추구하면서 반제투쟁을 완전히 포기하였으며 안으로는 당의 령도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고 우경투항주의로 나아갔다.

한편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남조선괴뢰들을 사촉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도발책동에 열을 올렸으며 파피암해분자들을 들이밀어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경제는 기본적으로 복구되었으나 전쟁의 상처는 곳곳에 남아있었고 인민들의 생활은 아직 꺾이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 어려운 시기에 반당종파분자들이 머리를 쳐들수 있다는것을 간파하시고 주체43(1954)년 3월 하순 내각 제12차전원회의를 여시고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가 있는 다음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였지만 그것으로 만족할수 없다고, 아직도 일부 지도일꾼들속에서는 자유주의적으로 행동하면서 당의 통일단결에 저해를 주는 현상들이 근절되지 않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당대렬의 사상의 지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엠엘파, 화요파 등 각종 종파에 가담하였던자들은 옛날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기회만 있으면 저들끼리 모여앉아 쏘라닥거리면서 다시 종파를 형성해보려고 책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4(1955)년

4월전원회의에서 당안에 나타나고있는 종파적요소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만약 지금에 와서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또다시 종파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시였다.

그러나 최창익을 비롯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반당행위를 즉시 중지할데 대한 당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당반혁명적음모책동을 계속하였다.

이자들은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5(1956)년 6월-7월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친선방문하시는 기회에 저들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혁명적무장폭동음모를 꾸미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외국방문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신 후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사업토의를 하시다가 당안에 사상적단합이 잘된 나라들에서는 레외없이 모든 일이 잘되어나간다는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 더욱 절실히 체험하였다고 하시면서 종파분자들이 알아들을수 있게 말씀해주시였다.

그러나 이자들은 앞으로 열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을 불의에 공격하고 일부 지방당조직들에 들어가있는 자기의 줄개들로 하여금 이에 호응해나서도록 함으로써 제놈들의 더러운 종파적야욕을 실현해보려고 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5(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을 개준하지 않고 계속 양봉음위하면서 우리 당에 도전해나서는 종파분자들의 반당반혁명적정체를 발가놓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청산할때가 되었다고 확신하시고 전원회의참가자들의 일치한 의견을 받아들이시여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우리 당대렬에서 제거해버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원회의에서 종

파분자들의 정체와 책동의 본질을 밝히시면서 앞으로 당안에서 종파활동은 무조건 중지되어야 하며 그것이 어떠한 구실밑에 감행되든지간에 또 극히 사소한것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제때에 조직적으로 청산해버림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지켜내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하여 발생할수 있었던 엄중한 사태를 미리막을수 있었으며 우리 당에 대한 대국주의자들의 압력과 간섭책동을 짓부시고 현대수정주의의 침습을 철저히 막을수 있었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반당반혁명종파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종파의 잔당과 그 사상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들을 힘있게 불려일으키심으로써 종파의 오물을 말끔히 가시도록 하신것이다.

당중앙위원회 8월전원회의를 계기로 종파집단은 된타격을 받고 제거되었으나 그 잔당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으며 종파의 사상여독은 아직 가셔지지 않고있었다.

종파잔당들은 당안에서 쏠라닥거리면서 나쁜 장난을 계속하고있었으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퍼뜨린 사상여독은 우리 당활동에 일정한 후과를 미치고있었다.

이런 상태를 방임해둔다면 반종파투쟁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할수 없었고 또 새로운 종파집단이 형성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시 이러한 형편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종파잔당들과 종파분자들이 끼친 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원들과 근로자

들속에서 종파도당의 반당반혁명적음모책동을 전면적으로 폭로하고 종파분자들을 조직적으로 청산한 당중앙위원회 8월전원회의의 정당성을 옳게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공세를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반종파선전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결과 전당적인 사상투쟁회의들에서는 종파분자들의 반혁명적인 죄행이 날날이 드러났으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안고 반종파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충정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의 분출이였으며 종파분자들과는 추호의 양보도 없이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의 발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종파잔당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편향없이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수 악질적인 종파분자들은 엄격히 처벌하며 종파에 의식적으로 가담한자와 무의식적으로 추종한자를 갈라서 그들의 문제를 건당으로 심중히 처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큰 죄를 범하지 않은자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엄격히 하되 처리는 관대하게 하며 종파분자와 반혁명분자와의 계선을 정확히 갈라놓고 그에 맞게 투쟁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종파투쟁을 다만 종파를 청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혁명에 대한 그들의 충실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

고 당중앙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을 반종파투쟁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반종파투쟁을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종파투쟁을 철저히 벌리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당조직들과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지도를 조직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8월전원회의의직후에 평안남도당과 중요 성, 중앙기관들에 당중앙위원회 지도를 포치하시였으며 이 경험에 토대하여 점차 지도의 폭을 넓히시면서 반종파투쟁을 심화시켜나가시였다.

주체46(1957)년 6월 황해남도 연안군당 위원회를 찾으시고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정형을 상세히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종파여독을 청산하는 사업이 아직도 완만하게 진행되고있다는것을 포착하시고 반종파투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군종파의 사업에서 소위 유지들에게 의거하는것은 종파의 여독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철저히 극복하고 애국렬사유가족, 후방가족, 제대군인, 빈농민들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사업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원도와 평안북도를 비롯한 다른 도당단체들과 건설부문, 인민군대, 사법, 검찰, 근로단체, 문학예술부문 등 당과 국가의 다른 중요한 부문들에도 지도사업을 련이어 포치하시고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면서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반종파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7(1958)년 3월 3일부터 6일까지 조선로동당 제1차 대표자회를 소집하시고 반종파투쟁의 역사적인 경험과 교훈을 분석총화하시였으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차 대표자회를 통하여 우리 당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과 그 잔여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종파를 낳는 온상인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주체45(1956)년 8월전원회의와 주체47(1958)년 3월 조선로동당 제1차 대표자회를 계기로 우리 당안에서 종파집단은 조직적으로 청산되였지만 종파를 낳는 온상인 지방주의와 가족주의는 의연히 남아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방주의, 가족주의가 우리 당안에서 종파를 형성하게 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방해하는 위험한 사상경향이라는것을 통찰하시고 이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반종파투쟁과 결부하여 강하게 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에서 지방주의와 가족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불을 걸도록 하시는데 한편 주체47(1958)년 3월 조선로동당 제1차 대표자회에서 이 투쟁을 전당적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8(1959)년 초에 함경북도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지도사업을 조직하시였으며 3월초에는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근 20일동안 도안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실태를 료해하시였으며 회령군당위원회 전원회의와 함경북도

당위원회 확대전원회의를 지도하시면서 함경북도안의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지방주의, 가족주의적경향들을 엄하게 지적하시고 이를 철저히 뿌리뽑는것을 도당위원회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안에서 종파의 오물은 말끔히 가셔지게 되였으며 그 여독까지 청산되게 되였다.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반당반혁명종파도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반종파투쟁을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신것이다.

5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설 당시 우리에게서 자재와 자금, 로력이 모자랐으며 기술도 부족하고 인민생활도 어려웠다. 게다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북침전쟁소동으로 하여 나라의 정세도 매우 긴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5(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혁명력량의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고 다음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양양을 일으킴으로써 내외원썹들의 악랄한 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우리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수 있게 한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주체45(1956)년 12월전원회의이후 몸소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사회주의건설의 혁

명적대고조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주체45(1956)년 12월 강선제강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곳 노동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의 기본 정신과 나라가 처한 어려운 형편을 알려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당은 혁명의 주력부대인 로동계급을 굳게 믿고있다고 하시면서 남이 한발자국을 걸으면 우리는 열발자국을 걷고 남이 열발자국을 뛰면 백발자국을 뛰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다음해에 강재를 계획보다 1만t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 수 있다고 하시면서 강선의 로동계급이 집단적혁신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이 추켜들어 그것이 온 나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으로 불러일으키는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힘있게 고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6(1957)년 1월 초 황해제철소를 찾으신데 이어 홍남, 신폭지구와 문덕군, 숙천군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공장, 기업소, 농어촌들을 현지도 하시면서 전체 인민들을 천리마대진군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종파분자들이 뿌려놓은 사상여독과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보수주의, 소극성을 철저히 짓부셔버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전국각지의 노동자, 농민들속에 파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일대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났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강선의 로동계급은 한해에 강재 6만t밖에 생산할수 없다고 하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생산하였고 김책제철소 노동자들은 년산 19만t의 능력을 가진 설비로 27만t의 선철을 뽑아냈으며 황철의 로동계급은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대형용광로를 일떠세웠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주체46(1957)년의 방대한 공업생산계획은 117%로 넘쳐 수행되었으며 공업생산은 전해에 비하여 144%로 장성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알곡생산을 112%로 넘쳐 수행하였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시비하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적전진운동에 찬물을 끼얹으려던 종파분자들의 책동이 여지없이 분쇄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공》책동과 《북진》소동은 물거품으로 되었으며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은 머리를 수그리지 않을수 없게 되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더욱 철통같이 다져지게 되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반당반혁명종파집단을 완전히 청산하고 반종파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다.